

쌀 소비촉진을 통한 쌀 산업안정방안

민 연 태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장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품종 개량,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쌀 생산 단수는 2005년 490kg에서 2009년에는 534kg를 기록하여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근 10년간('00~'09) 쌀 소비량은 20% 정도 감소했다. 매년 2% 수준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쌀 소비량은 지난 20년간 40% 감소해서 '10년의 경우 72.4kg에 불과했다. 쌀 생산과잉이 심각하여 매년 평균 20만톤의 잉여물량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08~'09년간 연속적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쌀 재고는 2008년 68만톤에서 2010년에는 1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적정 비축물량 72만톤보다 68만톤이나 많은 물량이다.

쌀 총생산액은 9조4천억원(농림업 생산액의 24%)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 벼 재배 농가수는 86만호로서 전체 농가의 71%나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쌀이 생산과잉되고, 여전히 많은 농가가 쌀 농사를 떠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쌀에만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는 제도적 요인외에도 농촌의 고령화·부녀화, 낮은 기계화와 영세성으로 논에 벼 이외 타작물재배 자체가 어려운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쌀은 “전화농업”이라고 할 정도로 농사짓기가 편해져 10a당 연간 노동시간이 16시간에 불과하다. 반면 동일 면

적당 콩은 30시간, 봄감자는 73시간이나 된다. 이에 따라 쌀을 제외한 타작물 자급율은 평균 6%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쌀 생산과잉을 해소하고 타작물의 자급율을 제고하는 병행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국산 쌀의 소비를 확대시키는 전략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최근에 아침은 빵 또는 결식, 점심은 칼국수, 저녁은 삼겹살을 먹는 식사형태 때문에 밀가루 음식, 육류 등이 쌀을 상당 수준 대체하고 있다.

빵에 내준 아침식단을 다시 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아침밥 먹기 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밥 먹기 운동과 비만예방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식생활 개선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국산떡, 쌀가루 선식 등 쌀 대용식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이 참여하는 아침밥 먹기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출근하는 회사원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침 결식자가 21%(1천만명)에 이르는 우리현실에서 아침 결식자의 50%만 아침밥을 챙겨먹어도 연간 12만톤 이상 쌀 소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밀가루와 수입산 쌀을 국산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외식용으로 국산쌀을 늘

리는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우리쌀로 아침급식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수입산(중국) 찌쌀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김밥도 국산 쌀로 유통시킨다면 우리쌀의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쌀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시 수분이 13% 이하로 과잉 건조된 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우리쌀의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져 소비가 확대되고, 외국쌀에 대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품업계, 수요처와 연계하여 밀가루 소비량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쌀가루 1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R10 마크」등을 개발하여 참여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목도 설렁탕 쌀사리에서 자장면, 칼국수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공용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정부는 가공용 쌀 사용 비중을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가공용 쌀 사용량은 '09년 22만톤에서 '12년에는 47만톤까지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쌀 소비, 유통과 생산의 연계가 부족했고 가정용, 외식용, 가공용과 무관한 밥쌀용 쌀만을 생산한 결과 밥쌀용 쌀은 과잉, 가공용은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쌀 가공산업 활성화여부는 3대 장애요인을 극복할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 먼저 경제적 장애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가공용 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 개발된 맞춤형 다수확 가공용쌀인 한마음, 드레찬, 다산1호 등 10여개의 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초다수성 품종개발로 가공원료곡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 또한 향후 들녘에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쌀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들녘별 경영체도 향후에 가공용 쌀 재배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소비측면에서의 장애도 극복해야 한다. 밀가루 위주 식습관이나 쌀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기술적 장애요인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떡류 이외에 면류, 주류 분야등에 대한 R&D 지원(쌀 소비촉진 가공기술 산업화 연구)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재고미를 이용해 쌀 그릇, 쓰레기 봉투, 쌀 종이컵 등 친환경 신소재 산업 발굴을 활성화하고 쌀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쌀 소비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 문제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 따라서 소비촉진노력에 더하여 논에 타작목재배를 장려하는 사업을 통해 쌀 생산과잉문제를 해소하고 타작물 자급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재배가능성, 수급상 여력, 쌀과의 소득차이, 타작물에 변동직불금이 미지급되는 제도적 불균형문제 등이 사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쌀 생산능력은 유지하면서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했던 휴경방법은 쌀 재배면적 축소에는 직접적으로 효과가 큰 방법이지는 않지만, 식량자급율이 낮은 상황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측면에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식량작물, 사료작물, 하계용 경관작물, 특용작물 등 4개 작물유형에 맞도록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조기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필요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논에 소득작물의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30ha 이상으로 단지화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전작장려금을 타작물 재배시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통해 1만ha를 줄이는 데

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3만ha 규모 논에 소득차 보전방식으로 논에 타작목재배사업을 금년부터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지자체별 농지활용계획 수립을 제도화해서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정책자금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쌀 생산능력은 향후 통일 및 국내 식량위기 등에 대비해서 유지하면서 적정량을 생산하

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쌀 생산비를 줄여 더 싸고 더 안전하고 더 맛있게 생산하되 이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다양한 쌀 소비확대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명실상부하게 수요와 공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쌀 산업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지름길을 잇어서는 안된다. 이 길에 정부는 물론, 농업인, 소비자,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